



2루,
2루!



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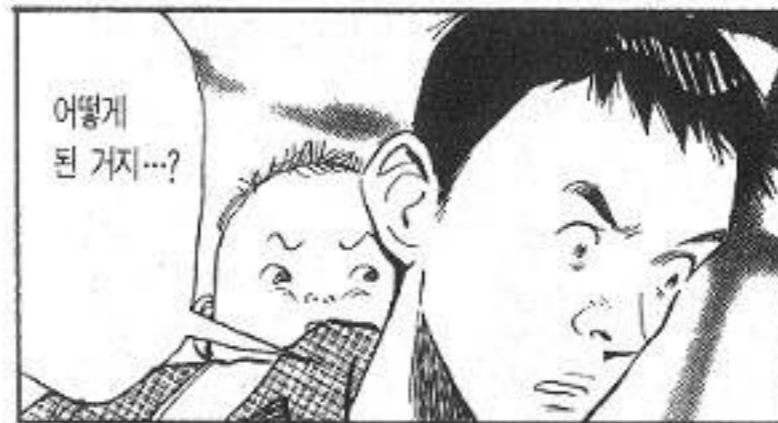
굿바이
런너가
나갔다!

좋아!
원 아웃에
1, 2루다!



타무라 마사오는
요즘들어
학교에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말했
잖아요.



어떻게
된 거지...?



뭐야...?



아마 거기
있겠조.

어디요?



아...
하지만 지금은
알디시피
휴강이라...

12호관...



그...
그 강좌의,

수강생은
어디...?



운동장...?



운동장.



너... 너희들
그 T셔츠-



쳤다-!!



강좌 대형
소프트볼 대회의 숙적,
가부토 강좌한테
이기려는 중이니까!

되게 시끄럽네!
지금 중요한
순간이라고요!



마사오의
집 주소라도
가르쳐 줘!



그럼...
집주소라거나
...

좋아!
한 방만
때려라!



취직 못하면
시키시마 교수님
책임이지, 뭐.

근데 우리 이러다가
졸업할 수
있겠나?



흘러,
흘러-!



라이트
비었다-!



이상한 세미나 같은 거 아냐?

마사오가 빠져 있는 게 뭐더라? 피라밋 판매였나?

어... 이거요?

무슨 마크지? 그거...



에이-! 간다-!

세계정복이라도 꿈꾸는 거 아냐?

...

아무튼 무슨 조직이야. 신홍 증교 같은 건가?

"친구"가 어쩌니 저쩌니 했어.



...



라이더 킥!

익-!



어이, 너네 3루 주자가 좀 이상한데.



!점만 더!
!점만 더!

좋아-!
동점이다-!



뭐가요?

뭐야, 너희들...



마사오...?

마사오한테서 산 거예요.

그 T셔츠 말야!
왜 전원이 그 마크를 달고 있냐구!



유니폼 대신 입은 거예요.

한장에 980엔이면 엄청 싼 거니까.

샀다고 할까... 강매라고나 할까...

아아... 이거요?



숙적 가부토 강좌를
이길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부탁
합게요!



켄지 외삼촌이
얼마나 굉장한지
잘 봐라!

알았지,
켄나.



애 좀
말아 줘.



다!



어?



아자!



저... 저기,
그냥 소프트볼
대리주자니까
그렇게 힘 줄것
없는데요...



구...
굿바이
런너가!



아아아!
슬라이딩할 때
발목을 삐었나봐~!



...하지만 우리
딱 9명인데...

대리주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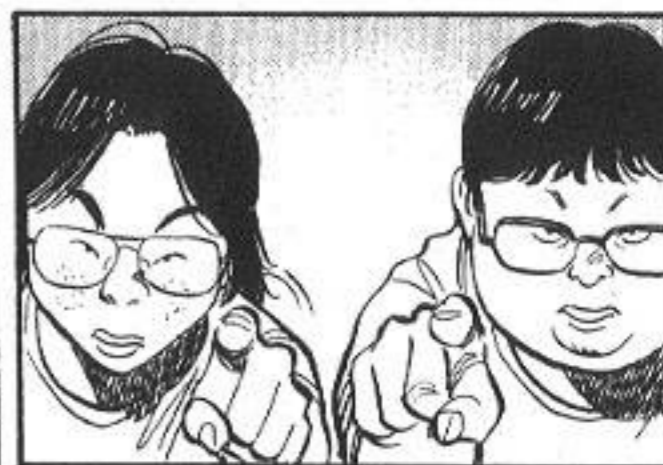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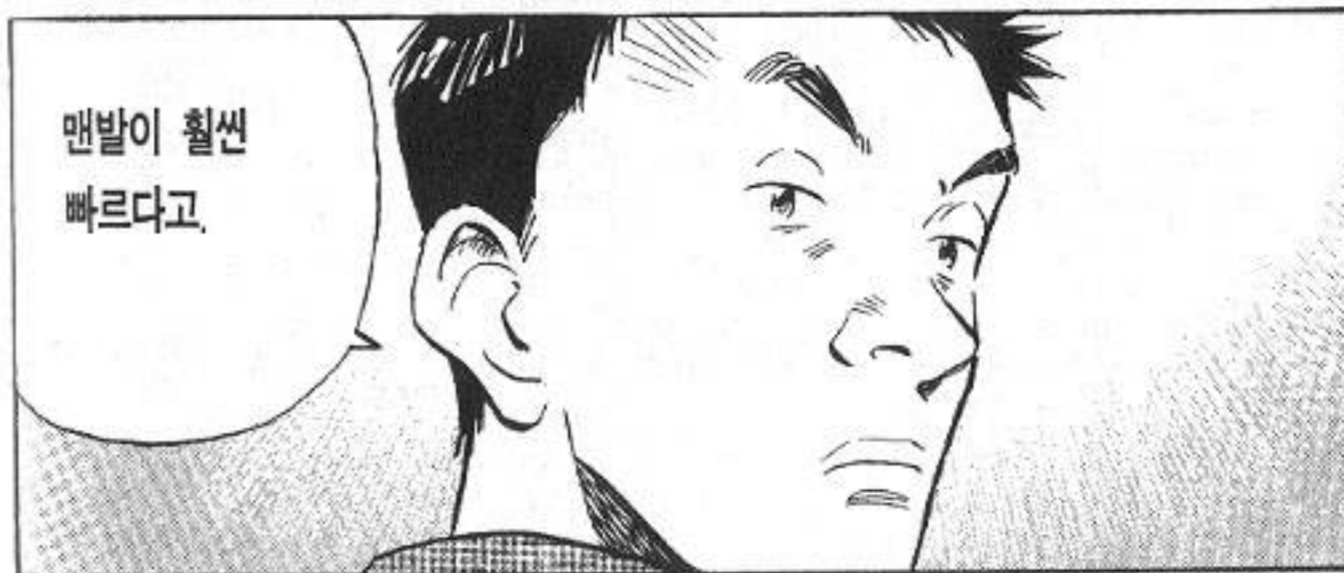
뭐...
뭐야...?



무... 무슨 소리아!
왜 내가 그런 걸
해야 하는데!

3루 주자 교대!
이 형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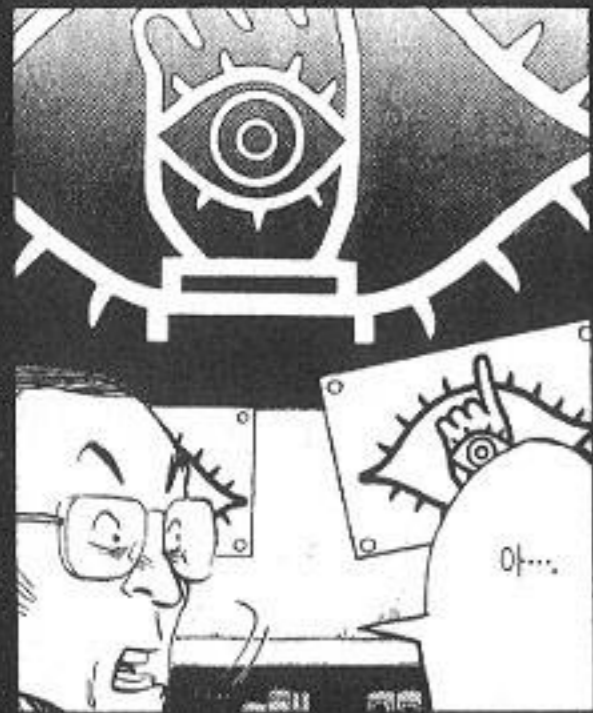
절로 치유가 되니 말야~



역시 "치유의 CD"는 좋다니까~



지깅 지깅



아...



모르는 사람한테 굳이 알아 주길 바라지도 않지만...

모르는 사람이 이 느낌을 절대 몰리요~



그리고 가져갈게...



음음.

맞아, 팬티를 한장 더 가져가는 게 좋겠지?



아웃!!



헤허허...



너처럼 달릴 수는 없나보다...

동키..., 역시 나는...

혼자 폭주하고-!

뭘 하는 거예요-!



어디 가니,
마사오!!



마사오!!



잠깐
기다려.



성큼
성큼

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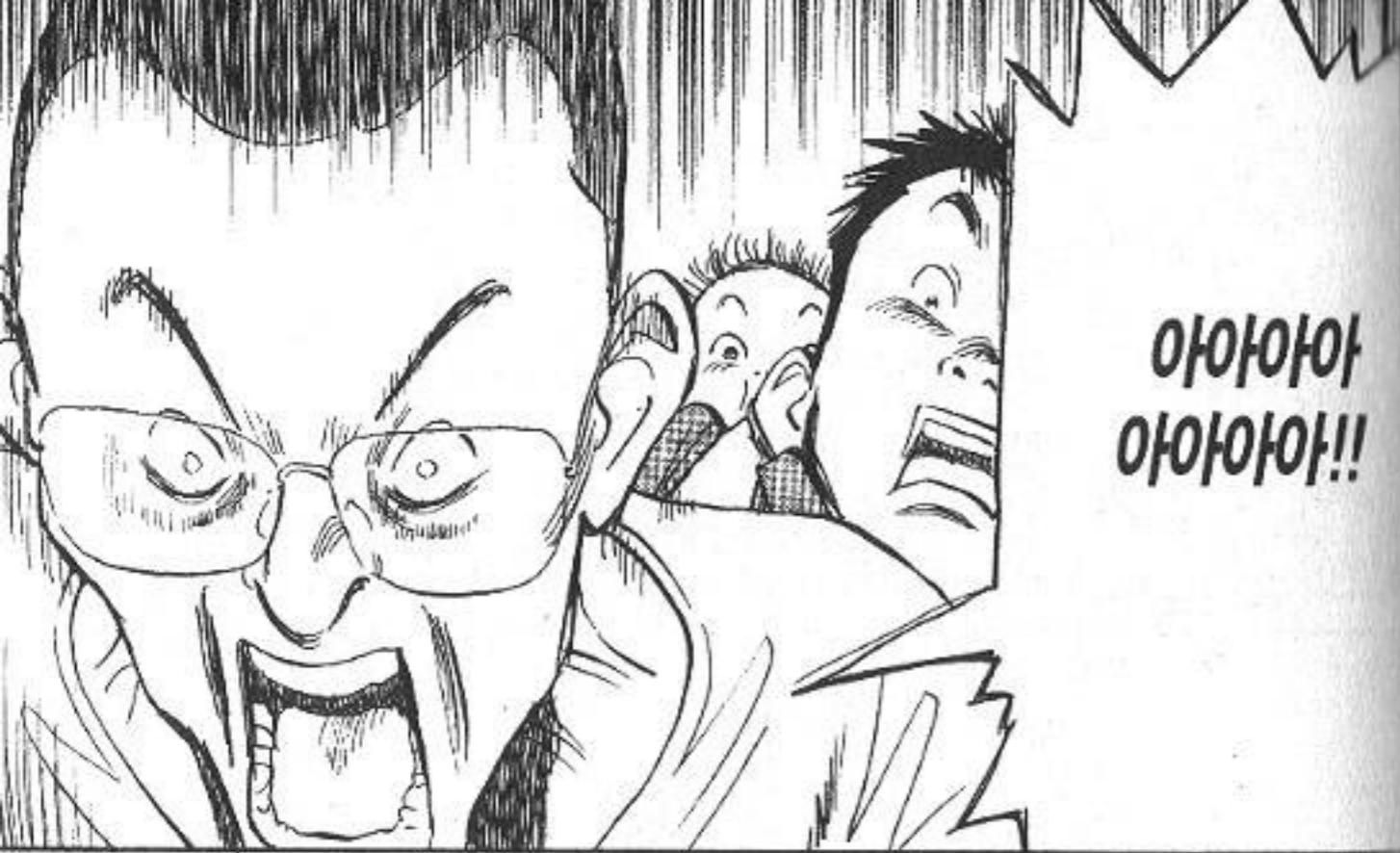
타무라 마사오
...맞지?



이건데...

징징
키키

제8화
구멍을 파다



아아아아
아아아아!!



알고 싶으면
마음을 바쳐라!!
알고 싶으면 마음을
흠 스텝 점프!!

알고 싶으면
마음을
열어라!!



너, 무슨
약 하나...?



알고 싶으면
목욕을 해라!

알고 싶으면
아를 뒹가라!



알고 싶으면
"친구"가 돼라.



너는 무사시야마
공고에서
키도 선생님한테
배웠지?



키도 선생님 일로
물어볼 게 있어!

동키...
아니.



잠깐
기다리라니까!



키도 선생님의
자살에 관해,
네게 물어볼 것이
있어!



성큼성큼성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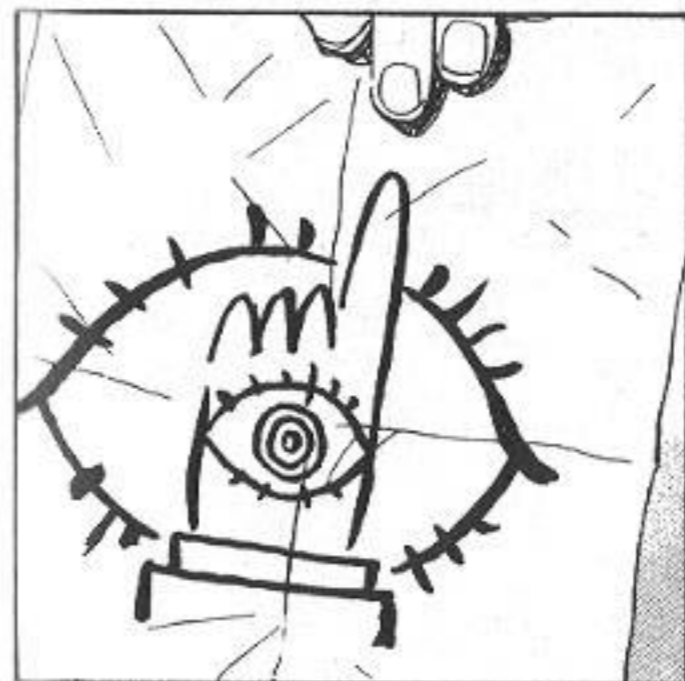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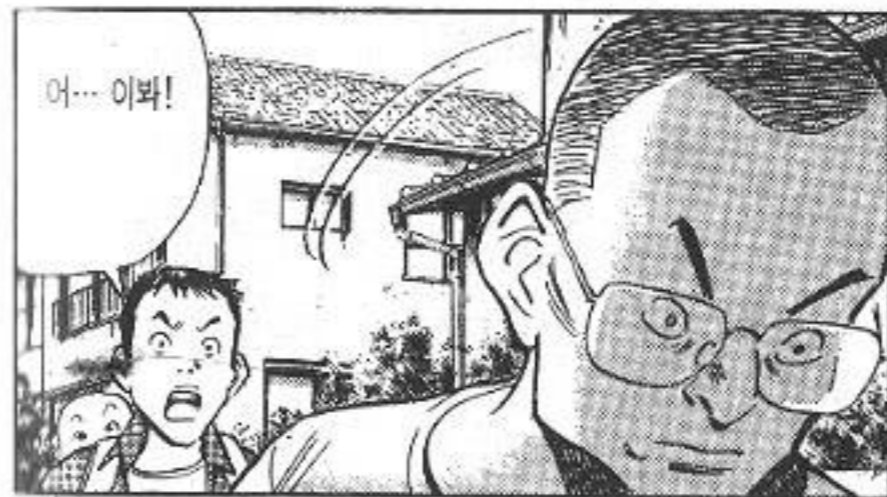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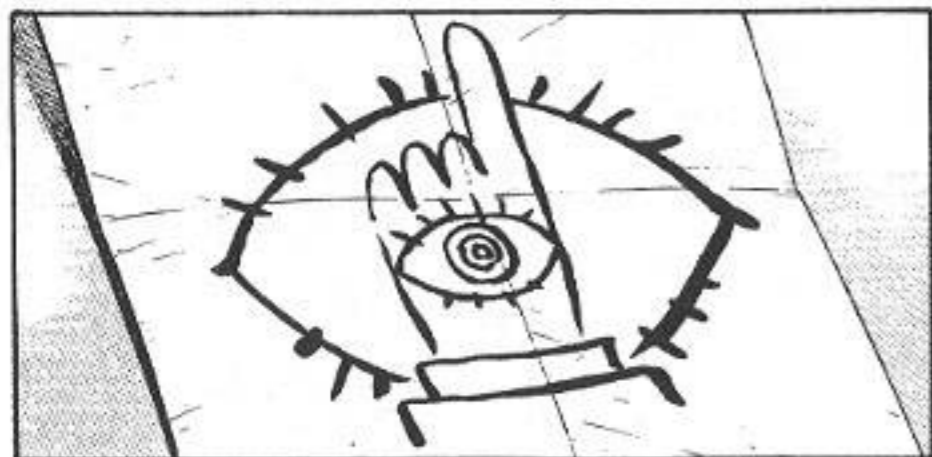
아...



...?



동키는 자살 같은 걸
할 녀석이 아냐,
그 녀석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





비밀결사라고
?!



술 가게 주인이
안 마시면
어쩌잔 말야!

좀 마셔라,
켄지~!

이연수 먹어봐,
이게 맛있다구!



벌판에
풀로 만든
아지트!

그래,
은신처는
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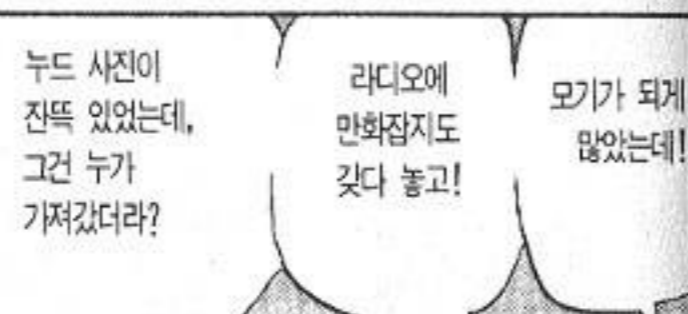


그리고 보면 어릴 때
우리도 만들었지,
비밀결사!

카-
오랜만에
들어 본다,
비밀결사!



하하하!



누드 사진이
잔뜩 있었는데,
그건 누가
가져갔더라?

라디오에
만화잡지도
갖다 놓고!

모기가 되게
많았는데!



아직도
그 얘기가~?

기억 안 난다고
했잖아,
이연수나 먹어!



그러니까
난 이 마크가
...

아...
저기...



무슨
비밀결사
같은...

이건
무슨 조직의
마크야.

대강 좀 해라.
몽이 내일 뒤셀도르프로
떨러나니까 송별회를
하는 거구만!

누가
떨러나간다고?



동키는
이 마크 때문에
내게 편지를
보냈대구!



생각해
봐!

너희들도
이 마크를
기억하고
있을 거야!



그 아지트에 있던 것들을 어디다 모아서...

그래, 물었잖아!!



기억 안나.



무슨 소리아...?

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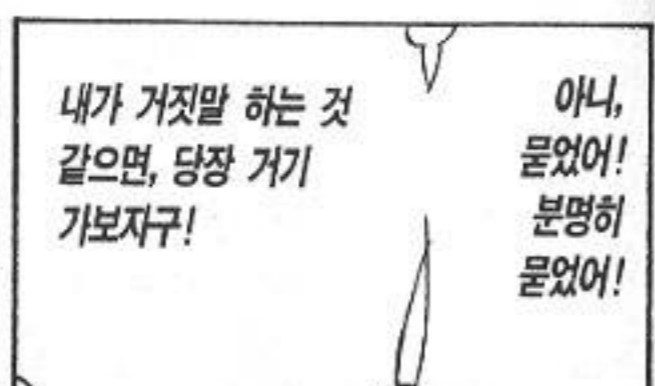
기억나나? 켜지.

우리가 그랬던가...?



가다니, 거긴 이미 불링장도 아니고...

잠깐 기다려, 응.



내가 거짓말 하는 것 같으면, 당장 거기 가보자구!

아니, 물었어! 분명히 물었어!



이면수나 다 먹고 가자!

됐어, 나는 간다!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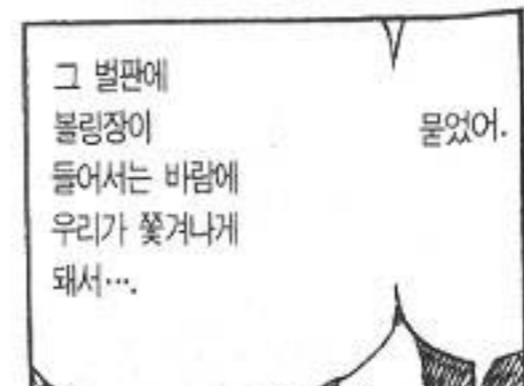
왜?



왜 그래? 응.



뭔가를 물었는데...



그 별판에 불링장이 들어서는 바람에 우리가 쫓겨나게 돼서...

물었어.



...뭘 말야.



문다니, 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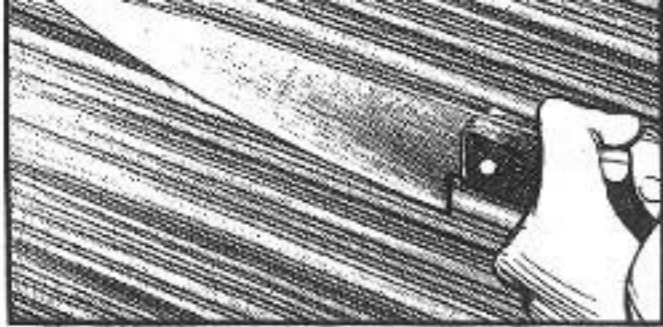


그 왜, 뭔가... 켜지, 너 기억 안나?

아니...







절교다-!!



"범인은 식발에 안경을 낀 학생풍의 남자"...

"현재도 도주중"이라니... 겁나라~!



또 흉악한 사건이 일어났구만.



어라.



가게랑 칸나는 팽개쳐 놓고 어디서 뭘 하는 거람?

벌써 내일 조간이 올 시간인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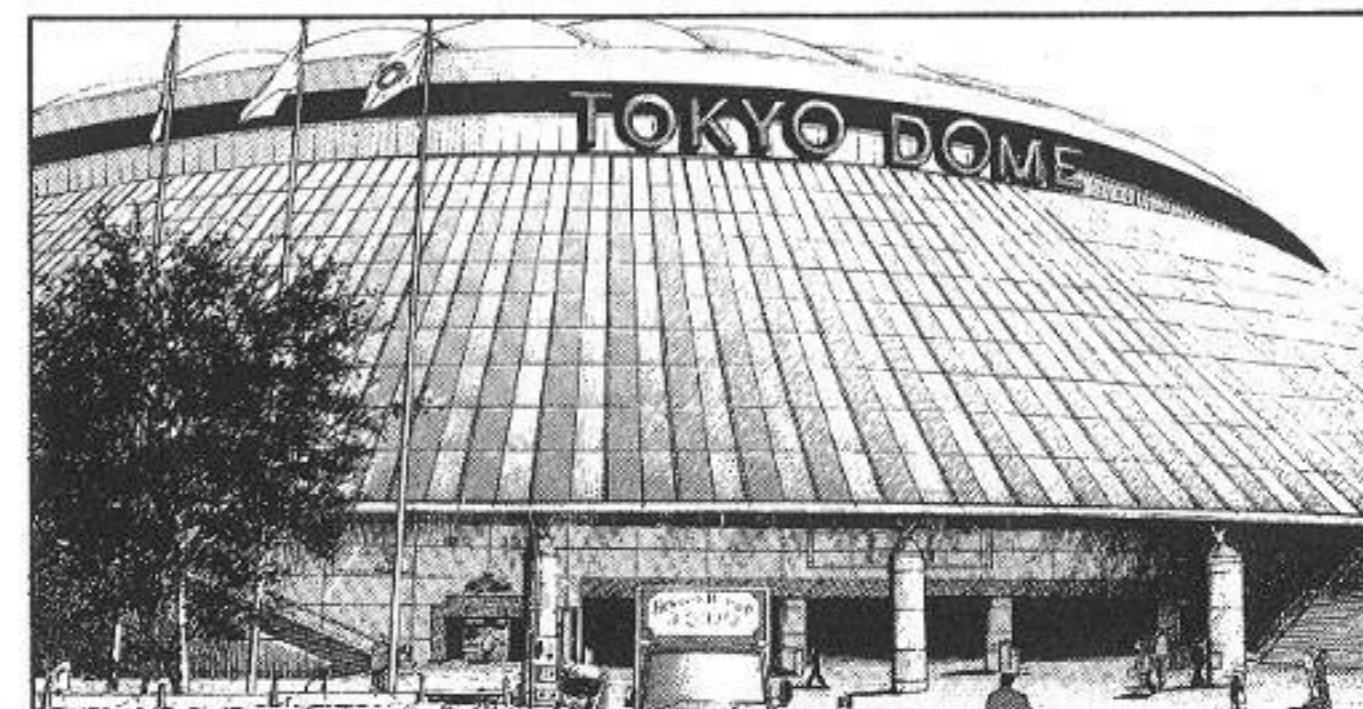
정수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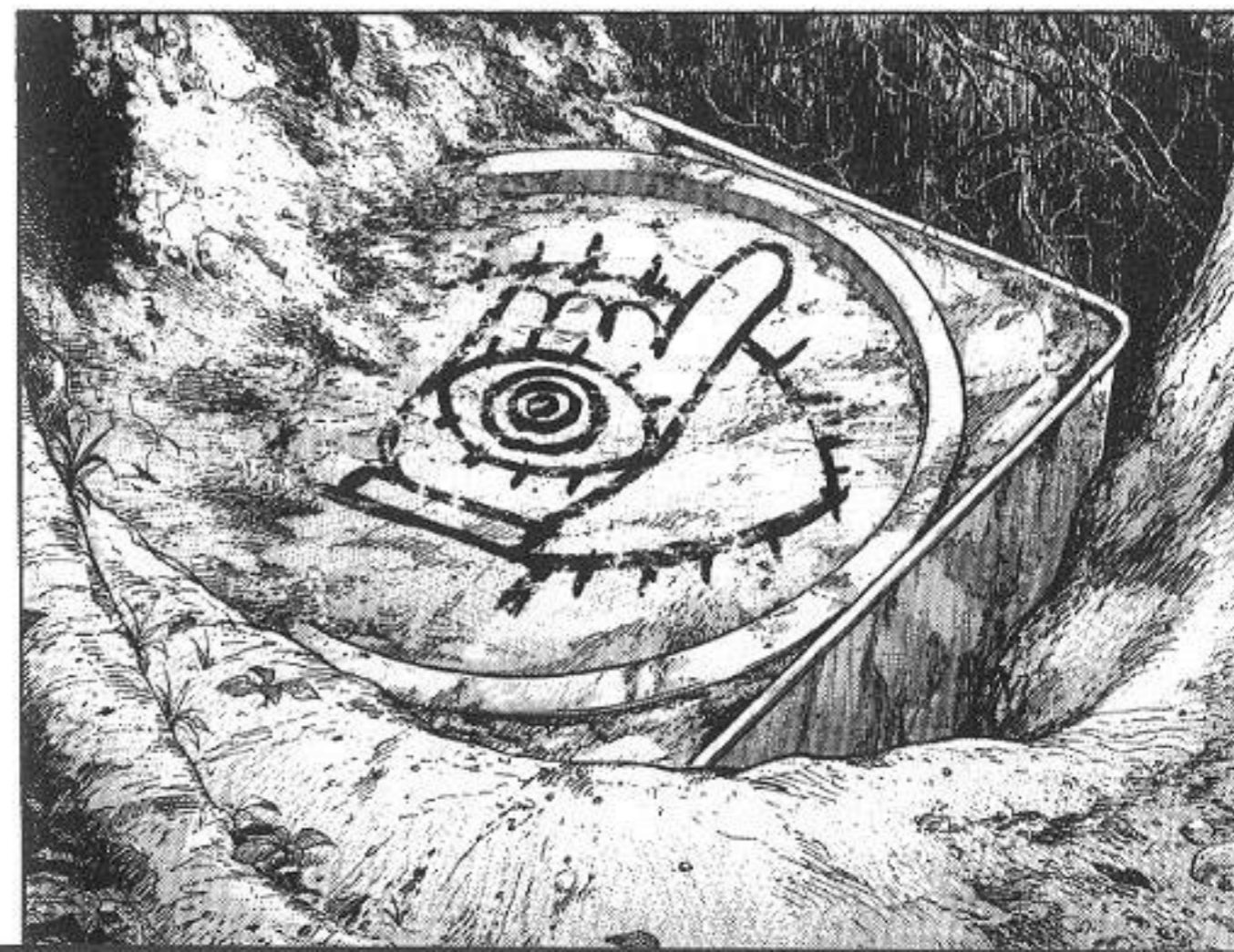


"많은 신자를 가진 종교단체 교주가 피살되다"...



「서울에 두배의 마중」
10만명이 이천모시 씨
19...
KORREKJONG
KORREKJONG
KORREKJONG







그 포스터는 왠지 아이들의 사교장인 과자가게 "영감할때" 바로 옆에 붙어 있었다.

어... 애욕... 의 사모님...?



국제극장



"비에 젖은 탕녀"...?

젖은...?

뭐야... 비...?



아... 아무튼 야한 거야, 어쩔거냐...

뭐... 뭐긴... 그 있잖아...

"탕녀"가 뭔데?

단어 공부에 좋았다...



"비에 젖은 탕녀"!!

비에 젖은 탕녀

"탕녀"가 아니라 "탕녀"잖아.



신춘 특선 영화 총천연색

풍만한 가슴이 출렁이고 쾌락과 환혼이 만년의 밤에 타오른다!

비에 젖은 탕녀

애욕의 사모님 시리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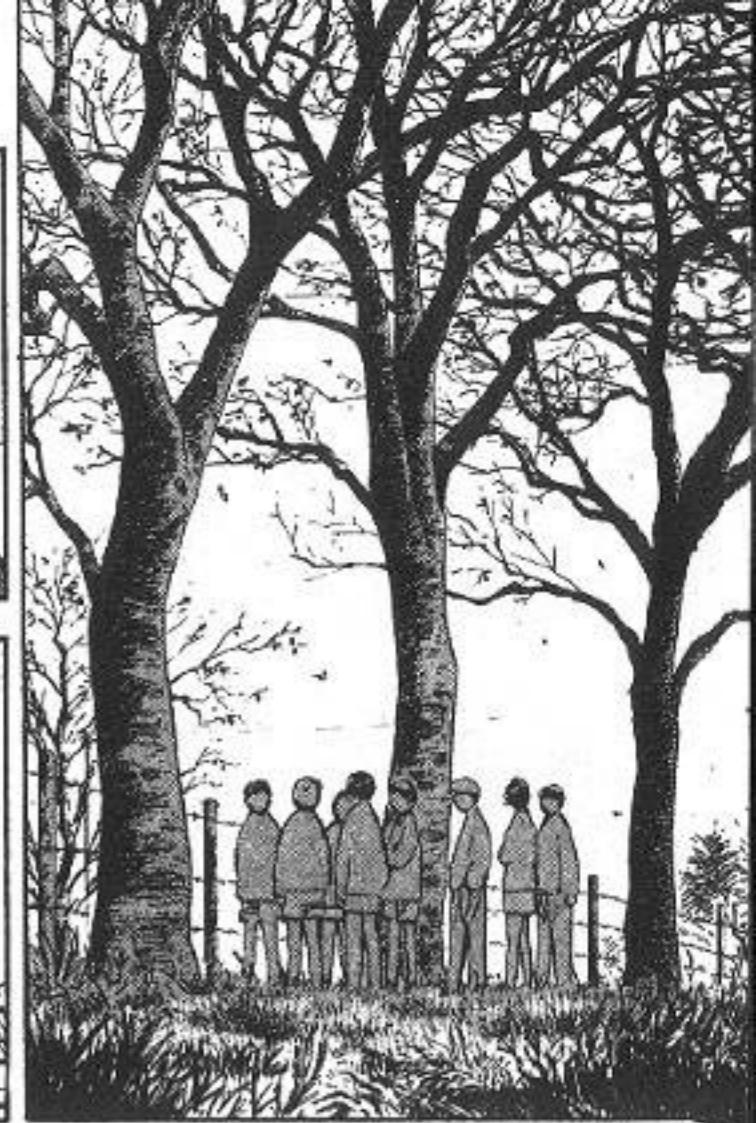
감독 에가미 이츠키 각본 나가사키 슌치

제9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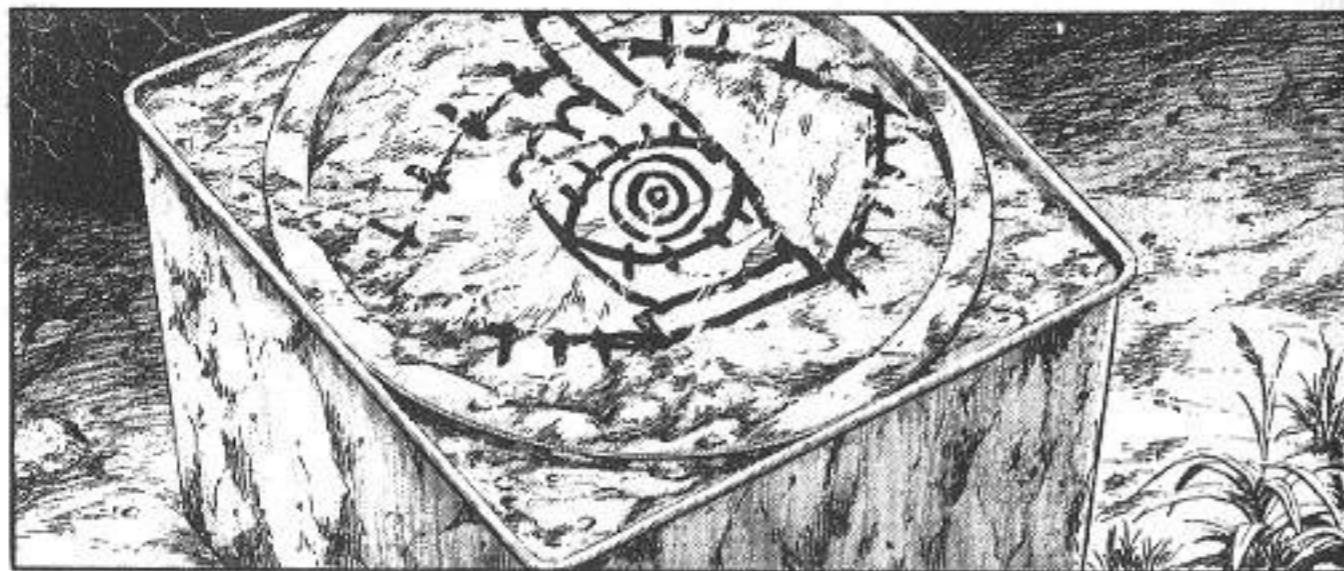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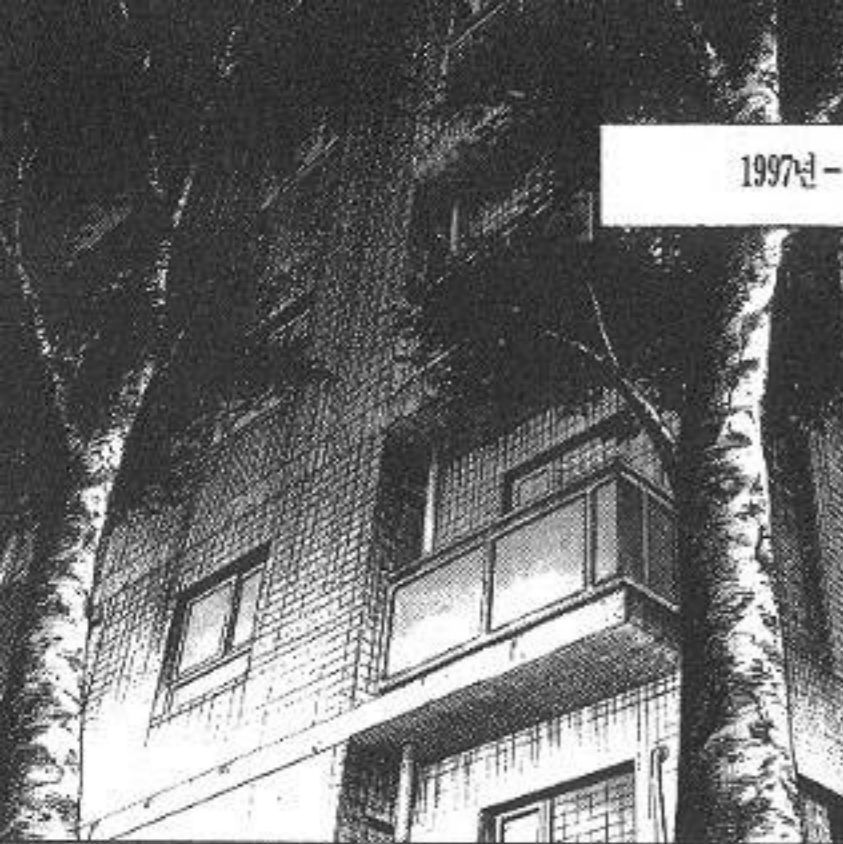
메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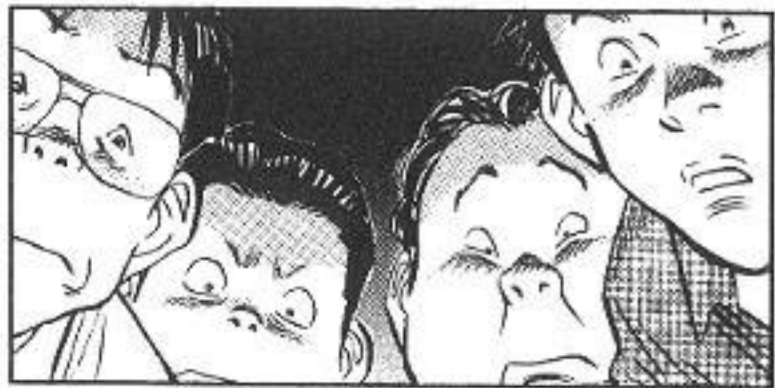
구로카와 키리코 호조 준코 쿠마가이 다카시 히로오카 노부유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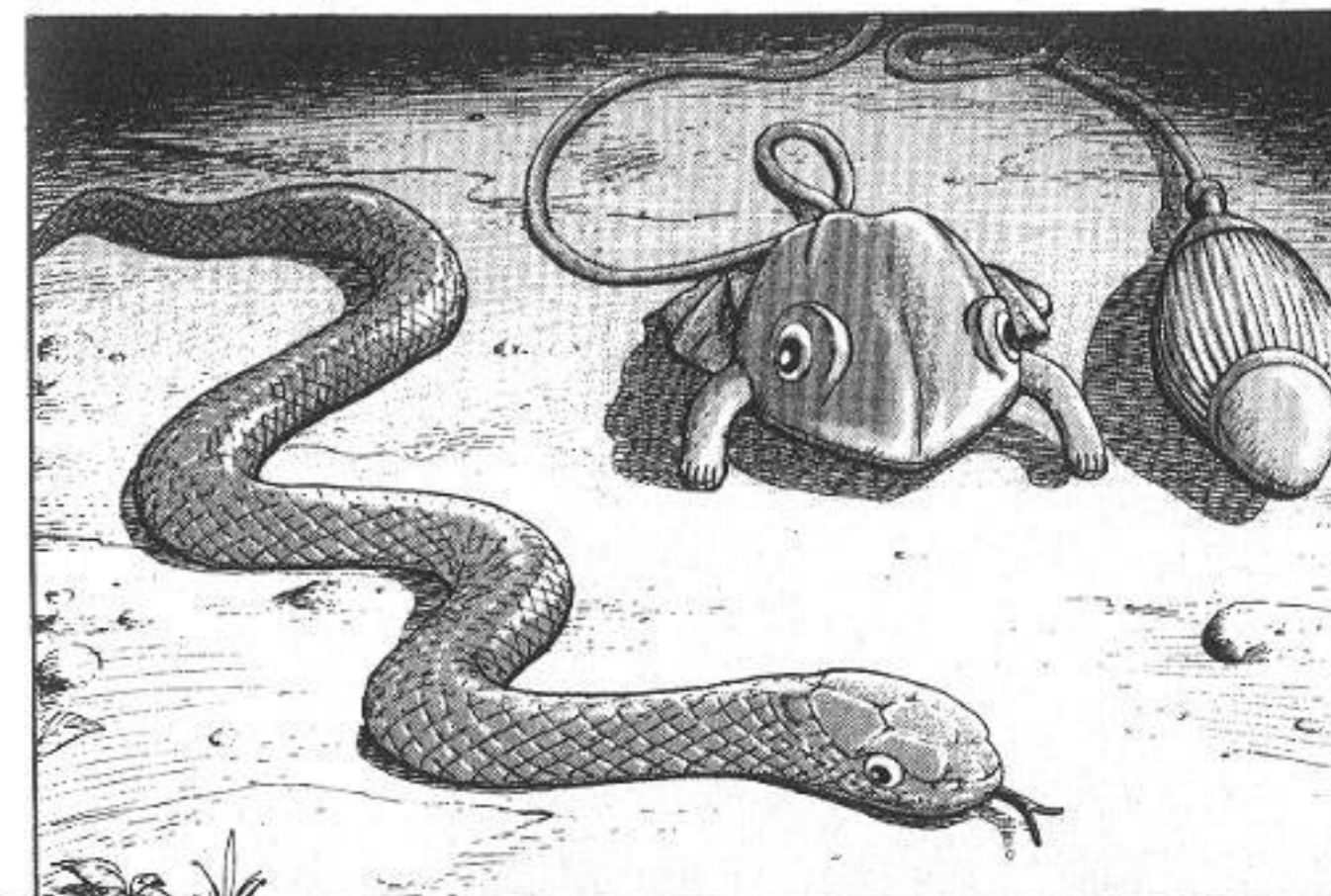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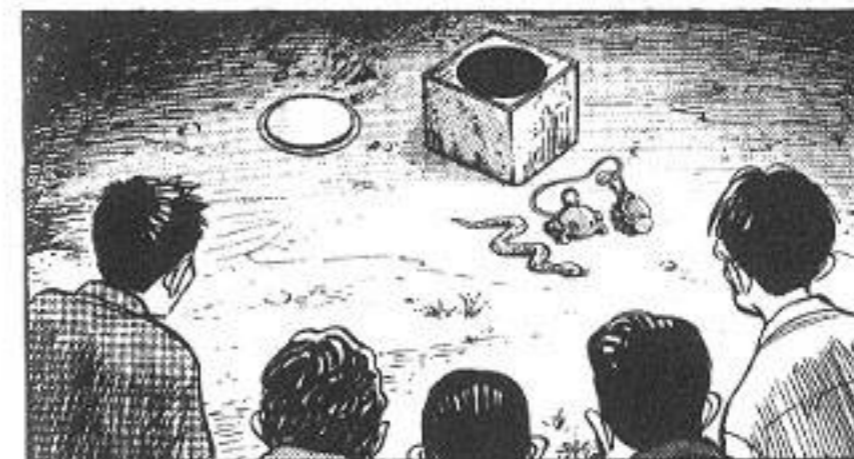




1997년 -











여러분에게
복사본이
나누어졌을
것입니다.



부스럭

부스럭

부스럭

고맙습니다
...

이런 시간에
이렇게 많이
모여 주셔서.



어제 사고집단의
선동자 하나가
"절교" 당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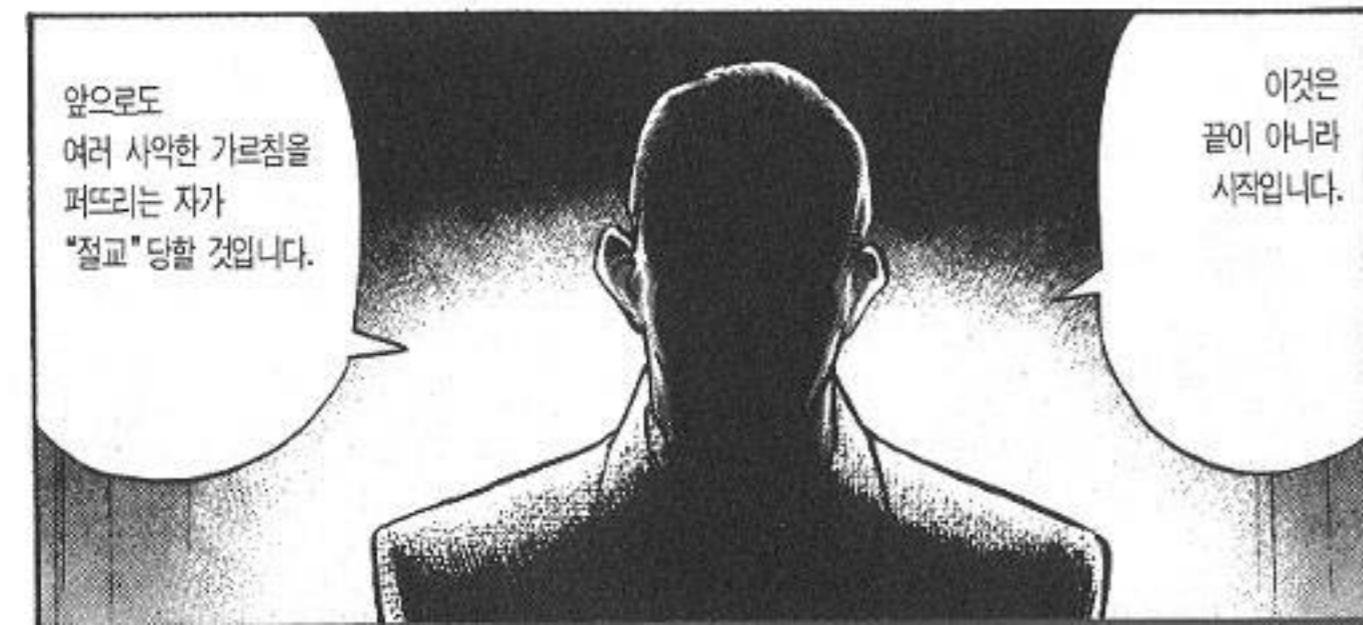


종교단체 교주 피살

「표예민 마에의 마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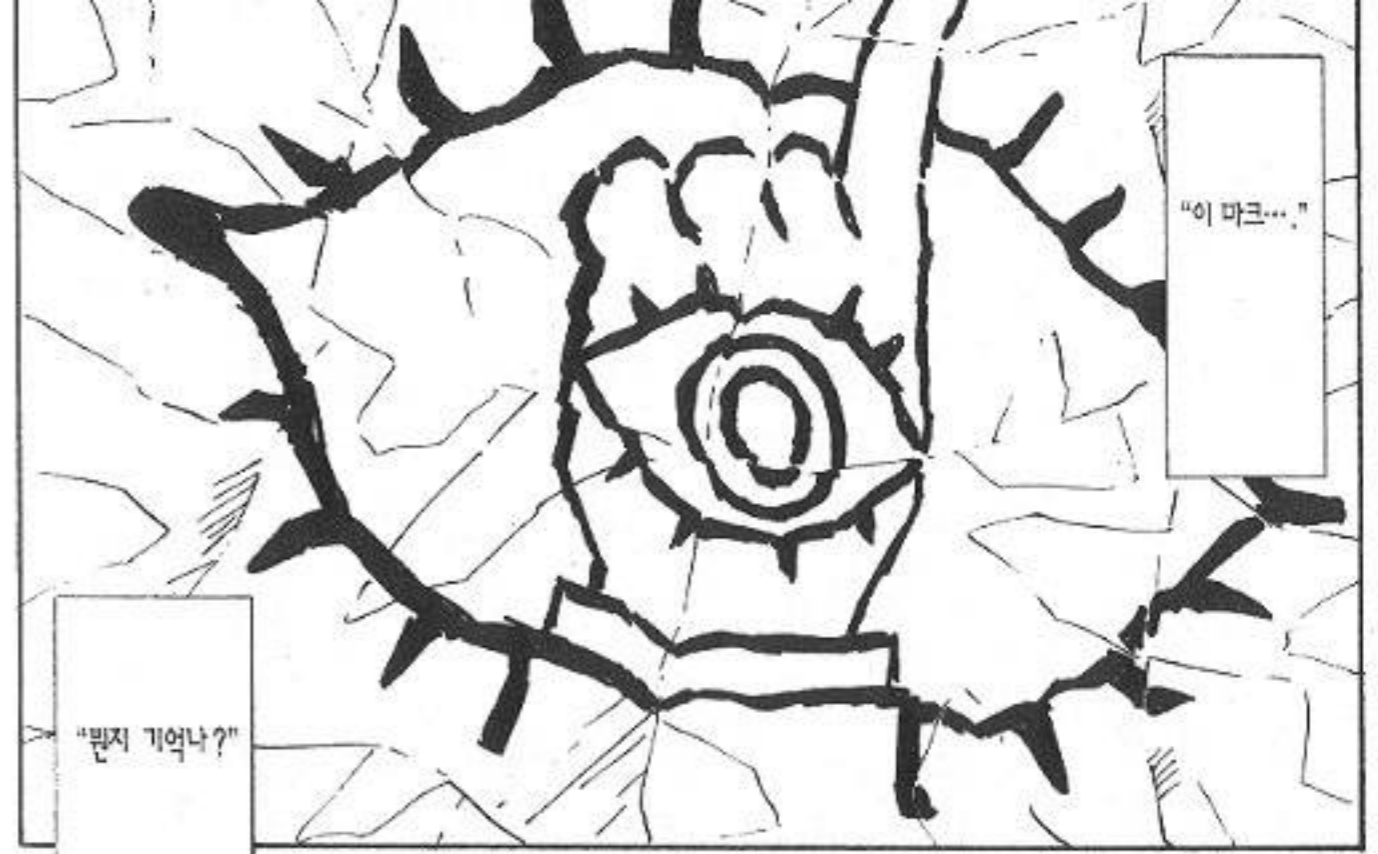
피에르 이치모지 씨
10만명이 운집한 도쿄 돐 앞에서

오늘 조간 신문
기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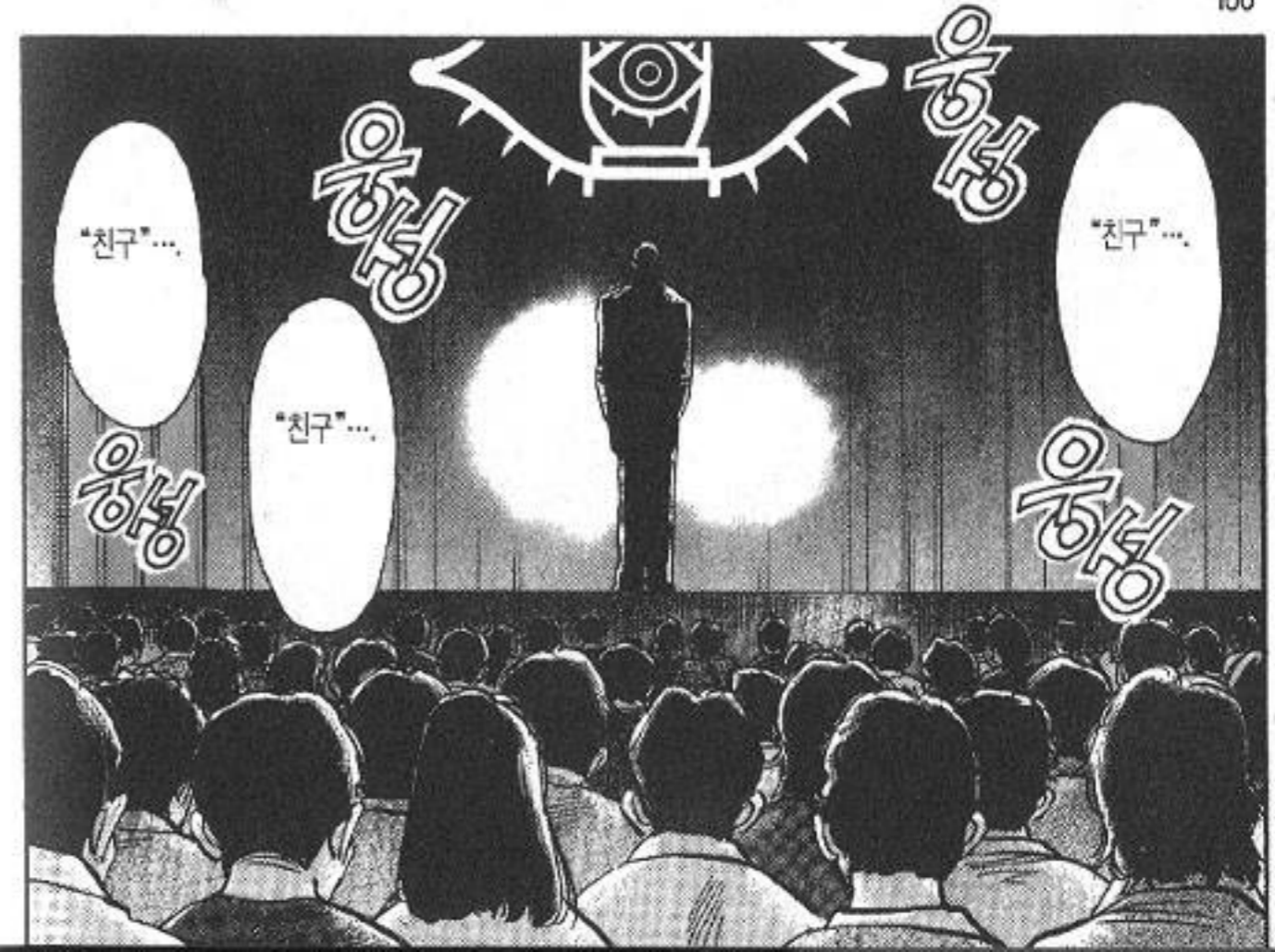
앞으로도
여러 사악한 가르침을
퍼뜨리는 자가
"절교" 당할 것입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 파크..."

"뭔지 기억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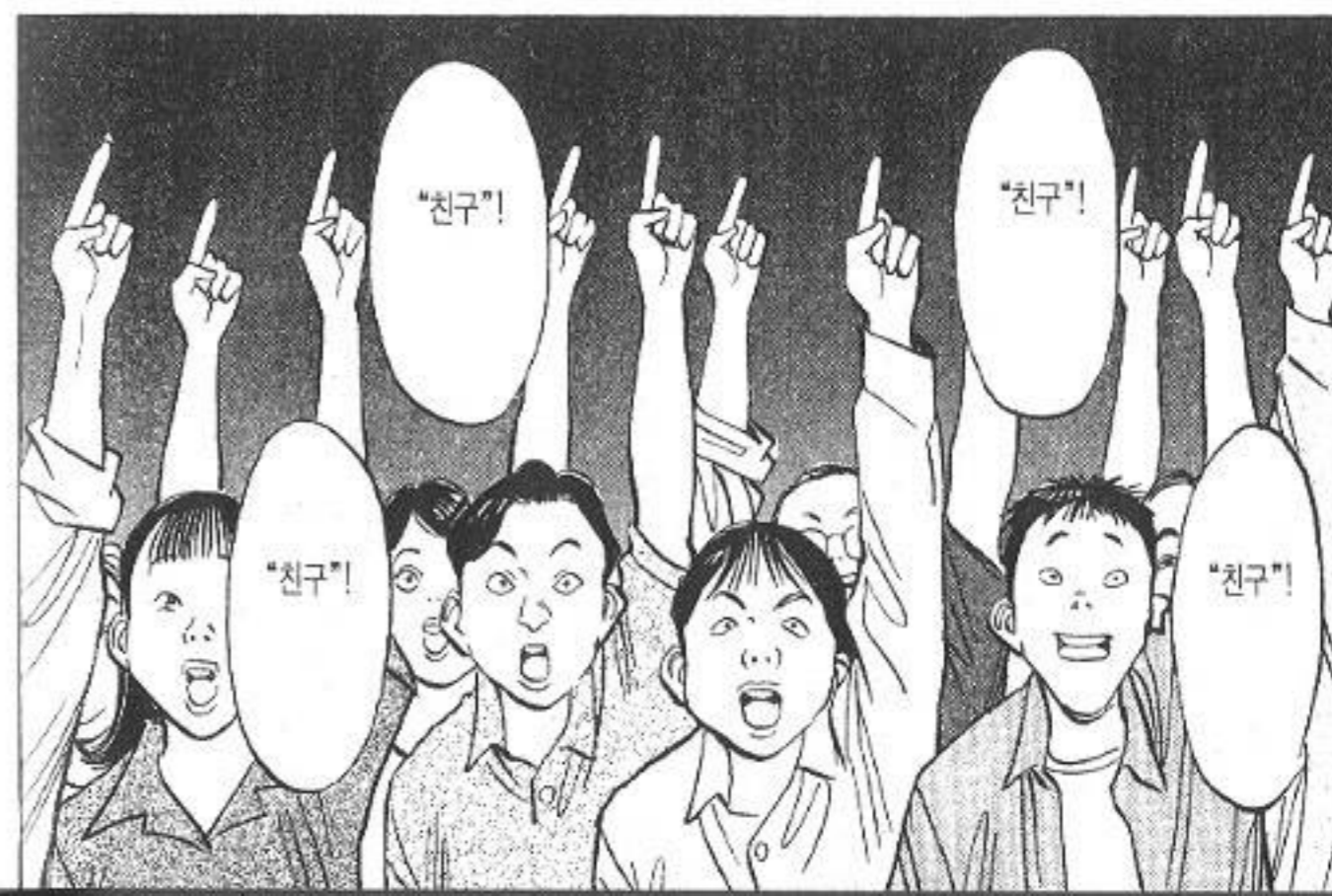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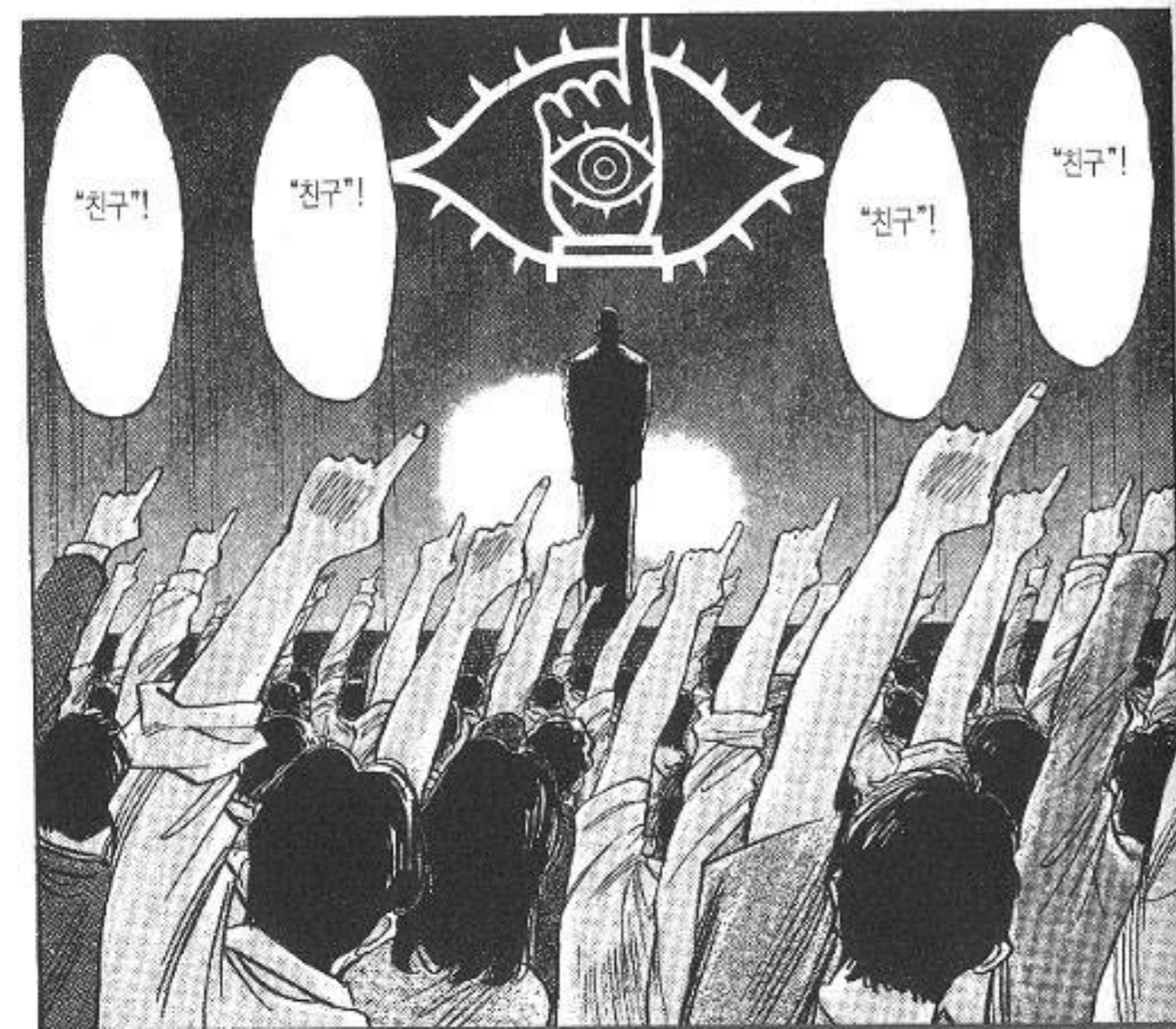
"친구"...

"친구"...

"친구"...

웅녕

웅녕





그리고 우리가
적으로부터
지구의 평화를
지킬 때다!



지구에
큰 위기가
닥쳤을 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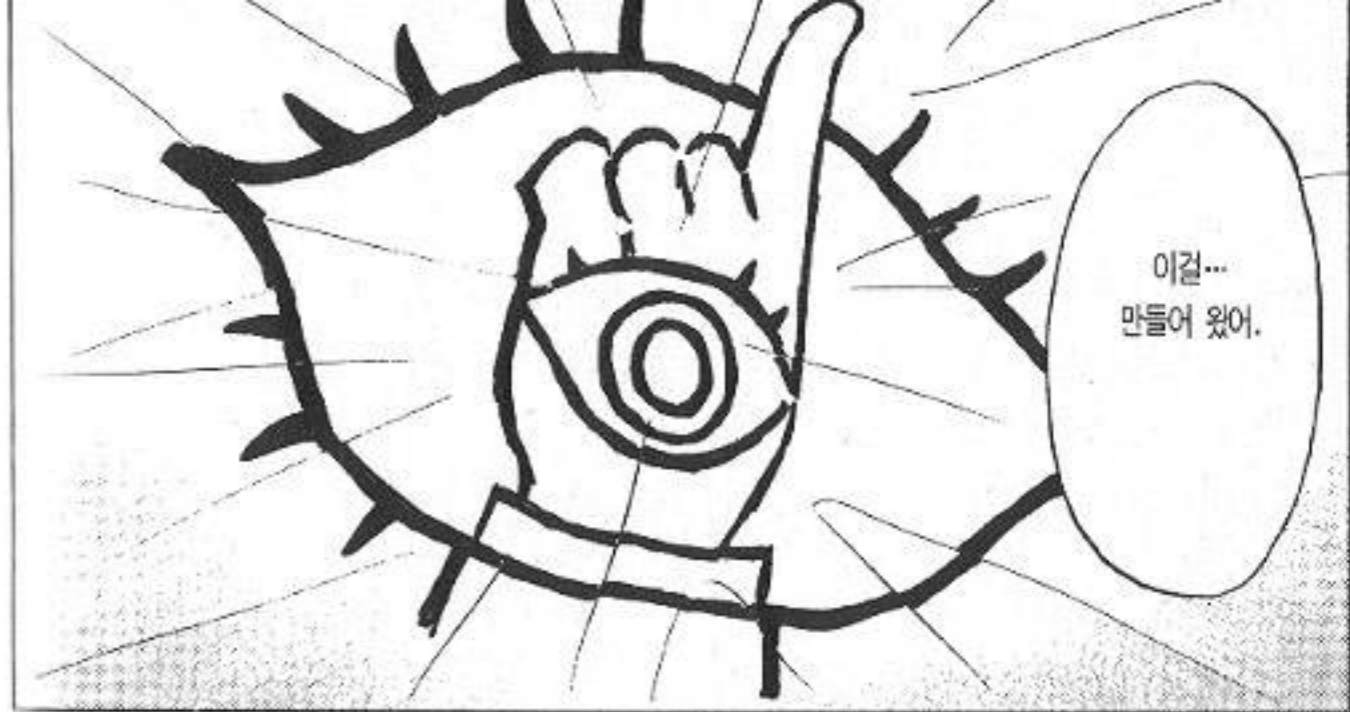


와-!!

되살아
났다...



그 시절의
기억이...



이걸...
만들어 왔어.



달의
전진기지에
이걸
세워야지.

헤헤...
외계인이
차들어왔을 때,



멋지다,
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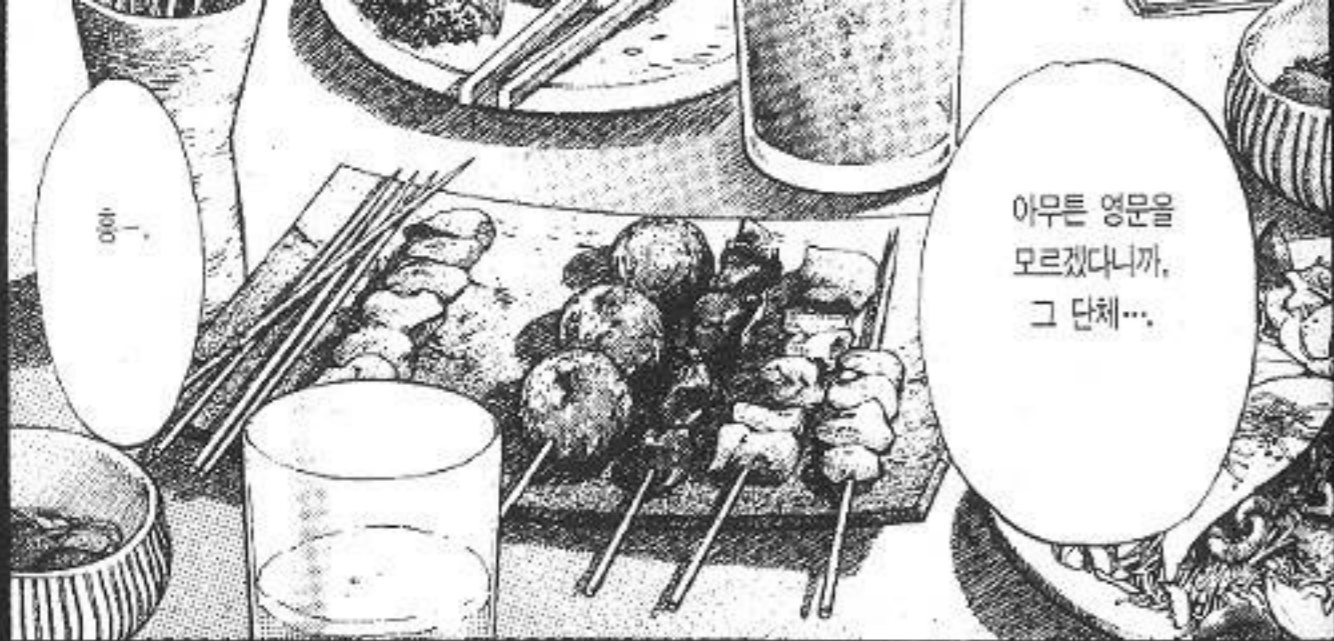
굉장해!
깃발이다!



좋아!
이제 안에
넣자!



다음에 이걸
파낼 때는...



아무튼 영문을 모르겠다니까, 그 단체...



알려진 거라면...

게다가 단체 이름조차 모른다구.



신흥증권지, 자기개발 세미나지, 피라밋 판매지, 뭘 하려는 건지... 도통 감이 안 잡혀.



아들 딸이 거기 빠졌으니까 피해자 변호인단을 만들어 달라며, 부모들이 우리 사무실에 와서 울고불고 사정하는데...



흥...

그 단체의 심볼마크 뿐이야! 이게 뭐 같니?



"우리가 적으로부터 지구의 평화를 지킬 때다..."

"다음에 이것을 파낼 때는..."



우리는 지금 그 시절에 꿈꾸던 그런 어른이 되어 있을까...



지금의 우리를 보면, 그 시절의 우리는 비웃을까...



넌 정말 남자 복도 지지리 없구나.



이젠 싫어!

정말 미치겠어- 더 못 참겠다구!



으- 짜증나!

남자란 게 원래 좀 그래.



오른쪽이라면 왼쪽. 왼쪽이라면 오른쪽.

암만 말해도 들어먹질 않아.



무슨 짓을 당했는데?

지긋지긋해! 매일 그런 짓까지 당하고...



조금만 눈을 떴어 버리고.



네가 번번이 쫓아가 주니까 상대가 기고만장한 거라구.



알아낸 거라곤 중심에 있는 인물이 "친구"라고 불린다는 것 뿐...



실체도 모르는 편이니 변호인단을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여기저기 조사하는 중인데...



그런 낮도깨비 같은 놈들이 무도관을 뺏 매우는 집회를 벌인다니...

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어. 단체명은 모르지, 중심인물은 "친구"라지!



혹시, 남자 문제야...?

듣고는 있지만, 내 문제가 더 심각해...



...근데, 내 얘기 듣고 있니?



듣고 있어...



조금만
방심하면
금방 나한테
오줌이나
싸고!

거짓말
아냐!



실마...



저...
저질!

시도 때도 없이
좋다고
달려들고!



마...
말은 들었지만
그런 녀석이
진짜로 있구나!



나도
헤어지고 싶어,
그런 똥개랑은!!



고민할 차원이 아니네.
얼른 헤어져 버려,
그런...



갑자기 다리에
얼굴을 대고
핥아댄단 말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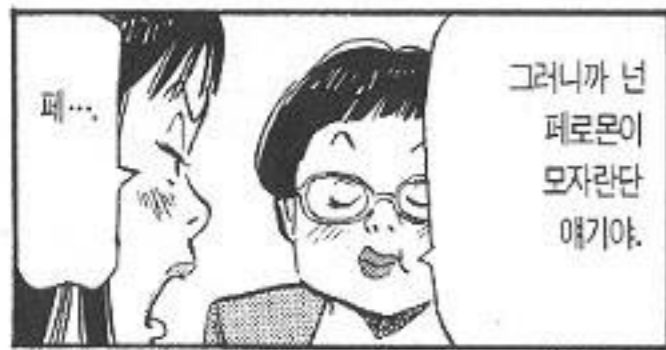
제10화
유키지



무슨 말을 하고 싶니?



그 바람에 이 나이가 되도록 상대라곤 똥개 뿐이라니~!



그러니까 너 페로몬이 모자란단 얘기야.



남자가 없는 건 꼭 직업 때문만은 아니라고 보는데.



뭐?

나눠 줘!



우리 남편만 해도, 내 페로몬에 홀랑 넘어왔다고 하던걸.



내일도 바쁘다구!

약속이 틀려-! 오늘은 같이 있어 주기로 했잖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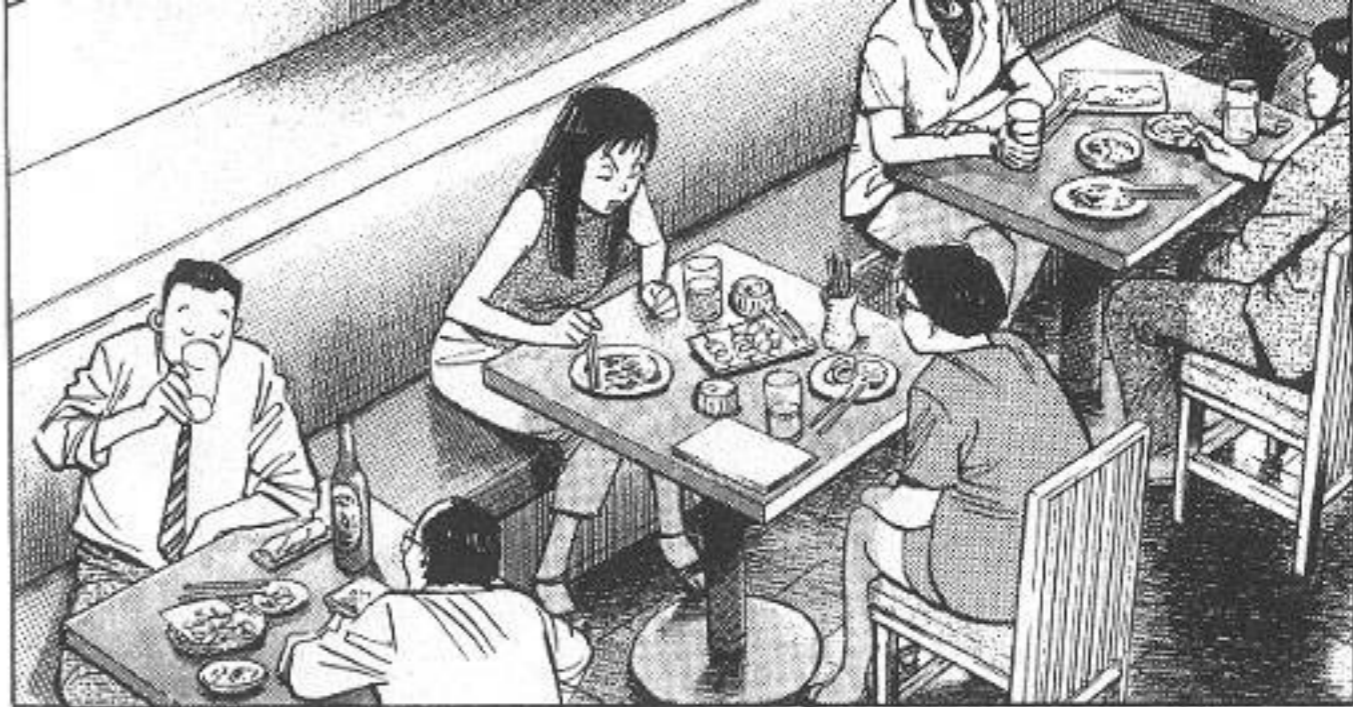


네 페로몬 나눠 줘~!



응?

아~ 또 술버릇 나왔다! 난 이제 갈래!



왜 그런 똥개가 현장에 온 거야? 왜 하필 내 담당이냐고?



개...?



어쩌다 마약건의 핸들러가 된 거라구!

난 평범한 세관 직원이란 말야!



마약 단속반이 아니라고 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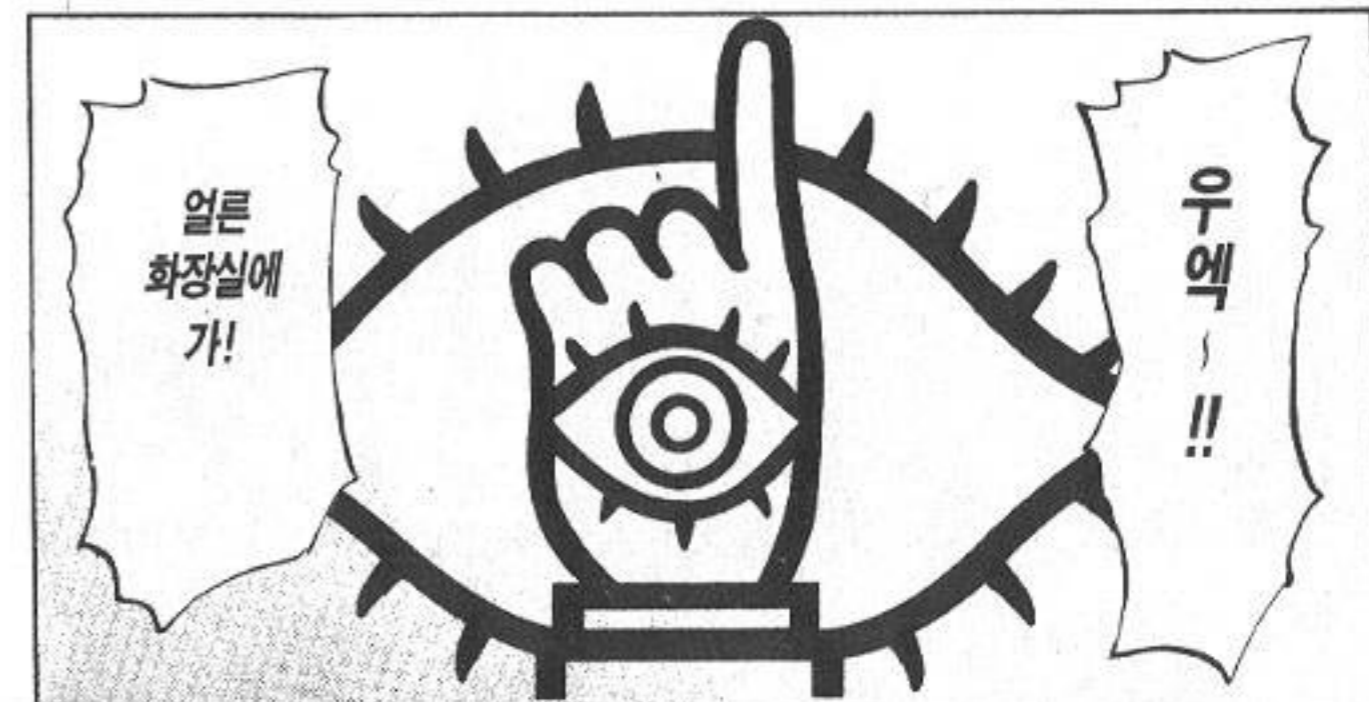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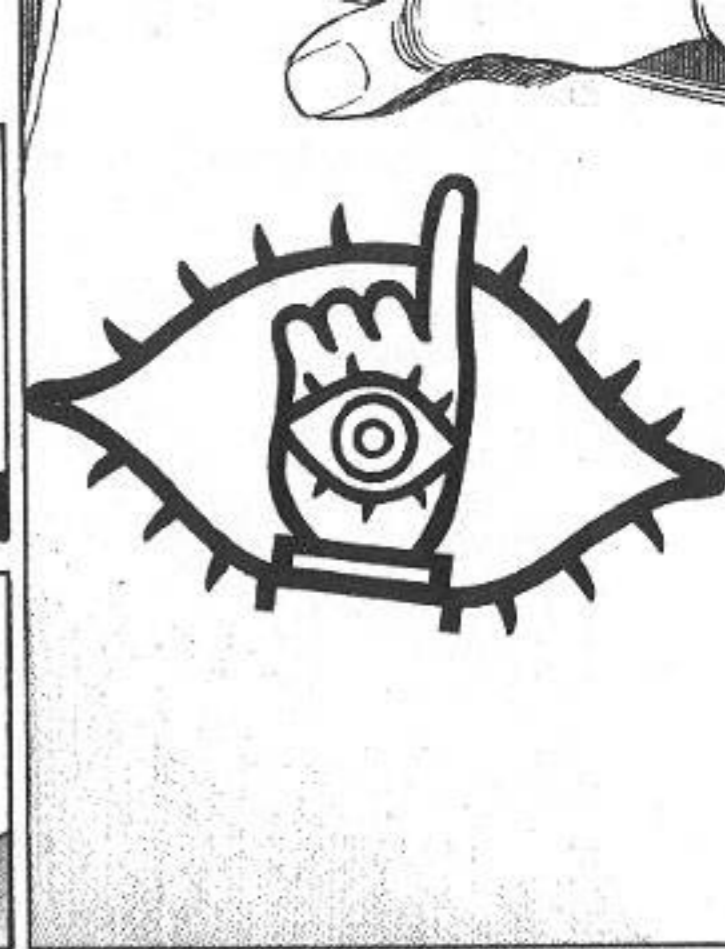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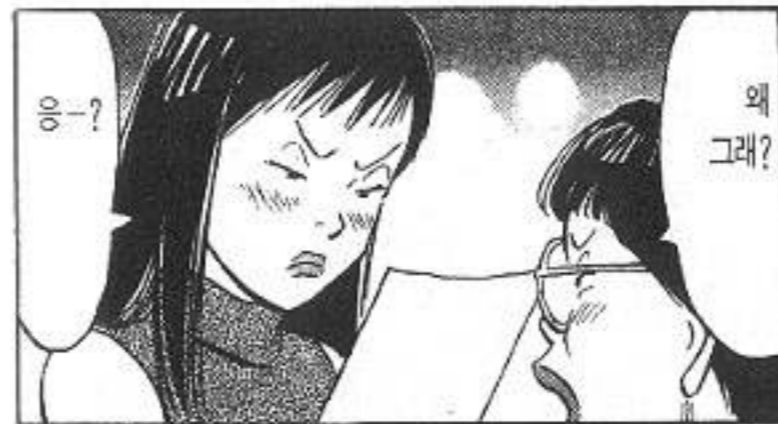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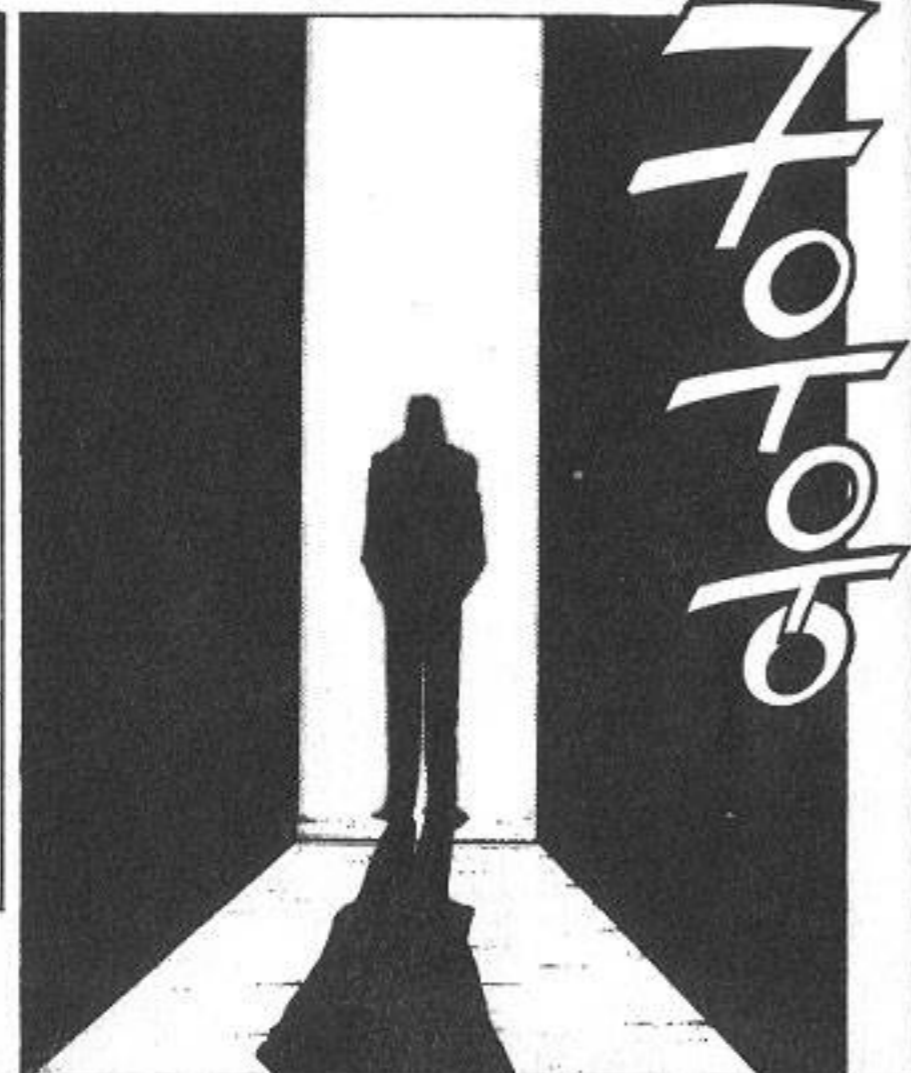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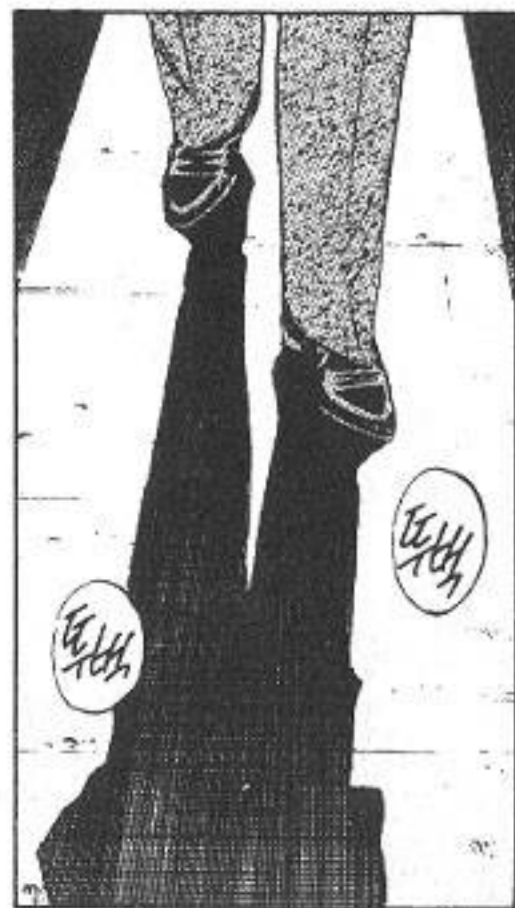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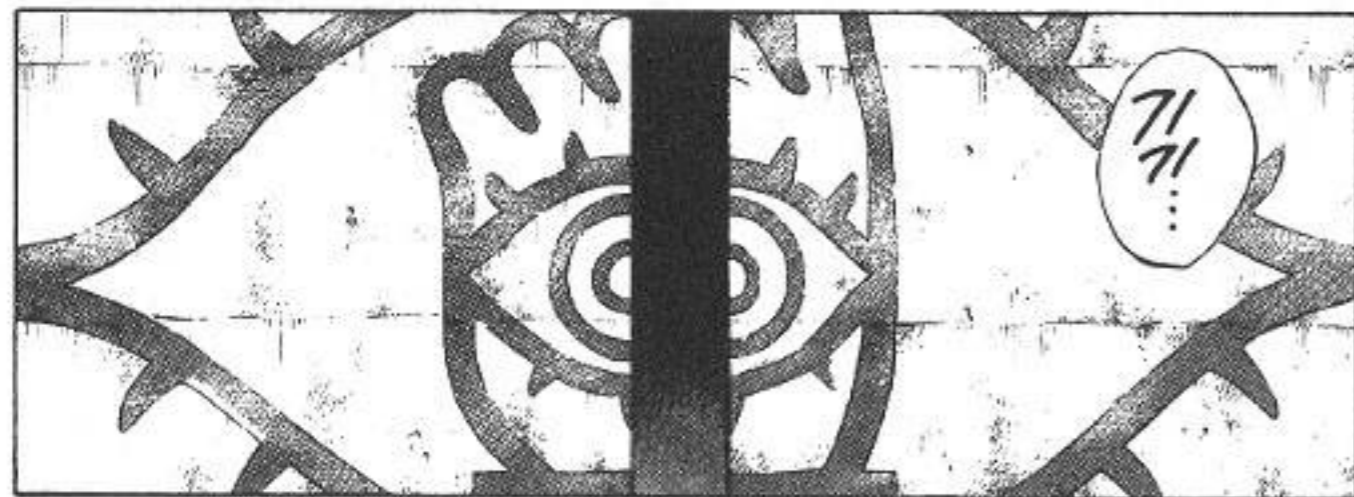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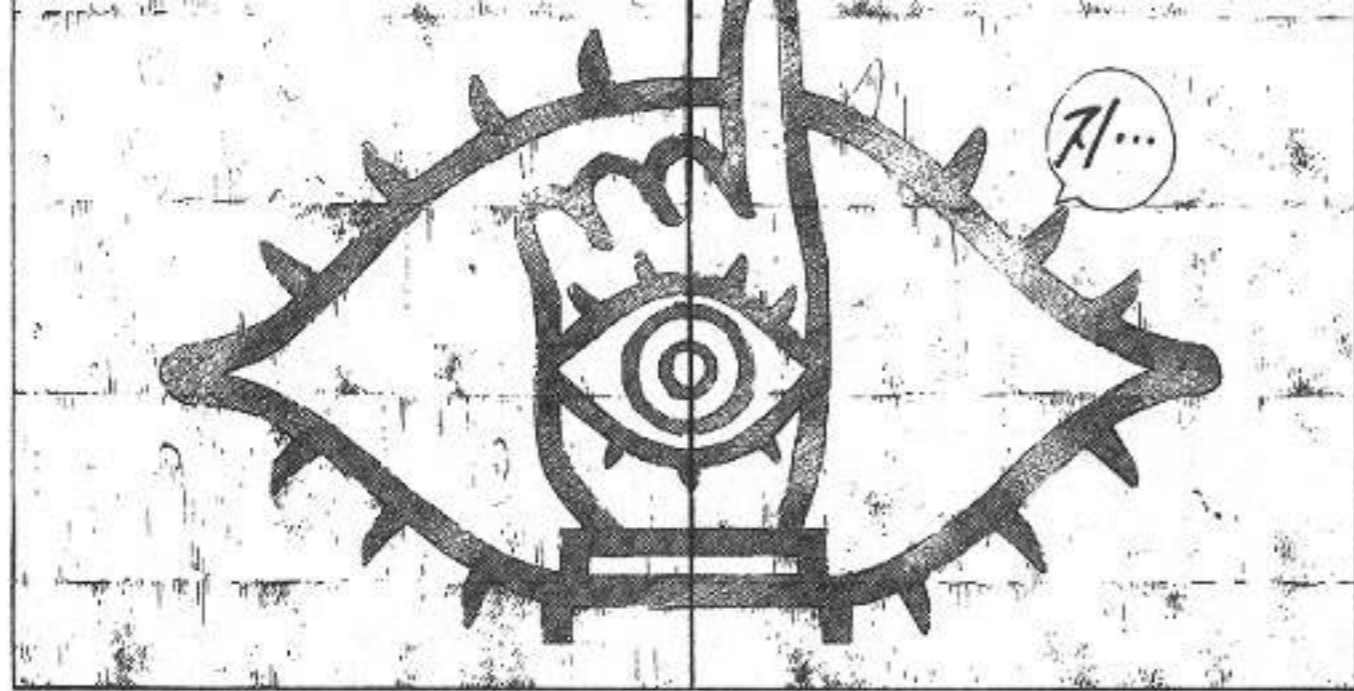
아아- 힘들겠다. 마약 단속반 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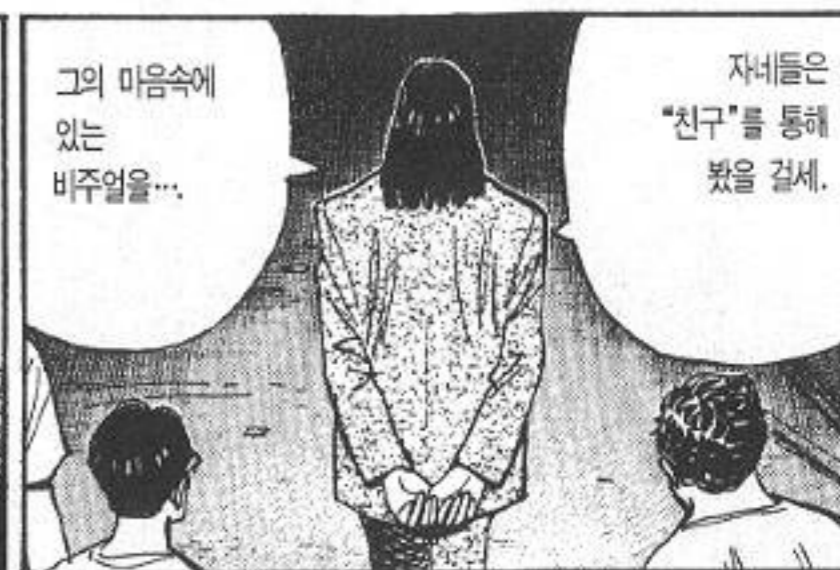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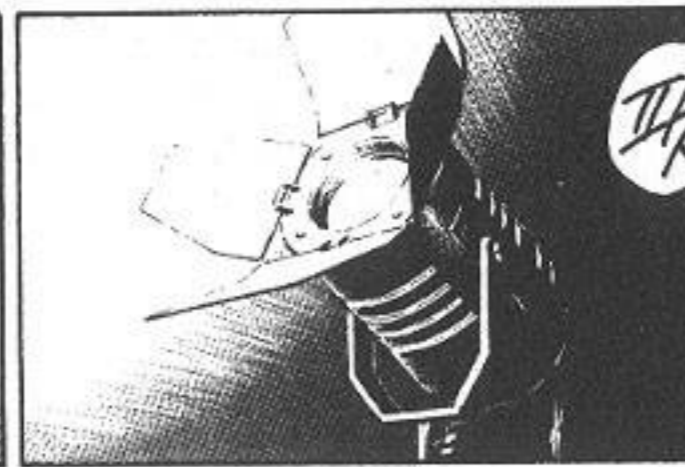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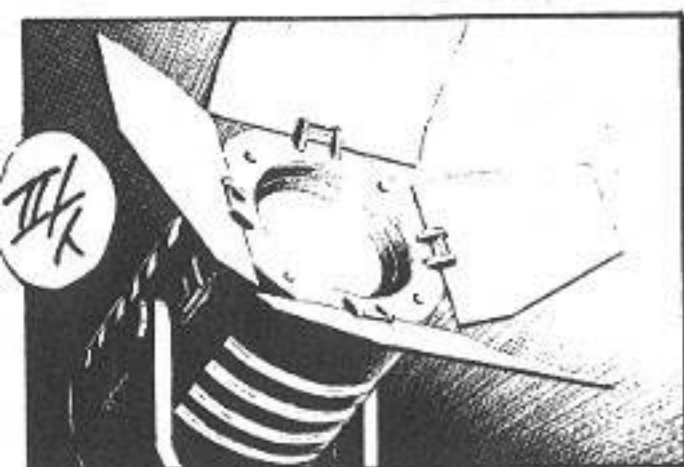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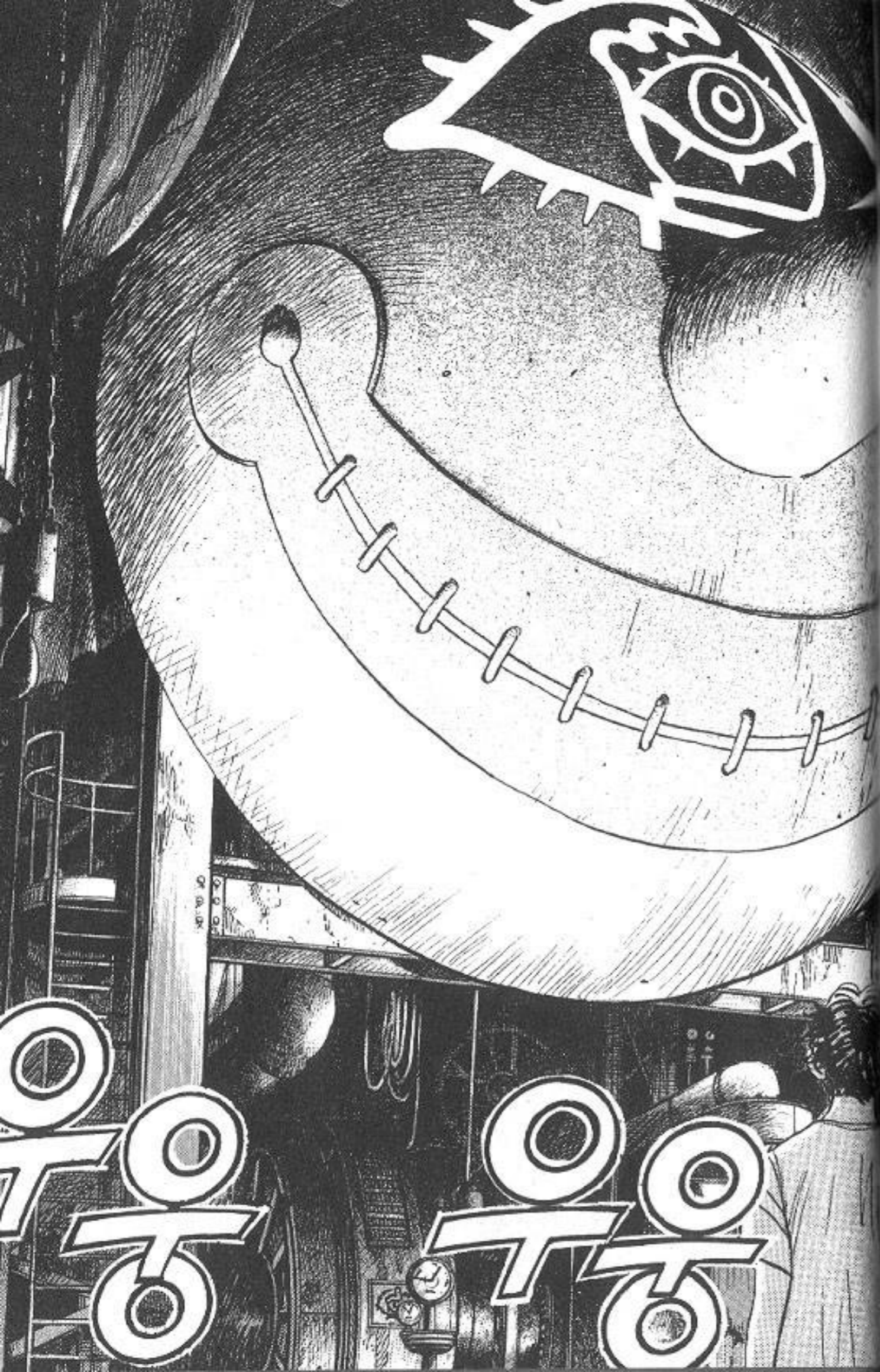
와- 마약 단속반이세요? 하고 남자들이 도망가!

내 일에 대해 조금만 들어도









이만하면 "친구"도
마음에 들어
하시겠지.



후아아
아아...

그만 좀 하자.
집에 가서 잘래.



잠깐만.



또
시작이네.



우린 엄청난 걸
파냈는지도
모른다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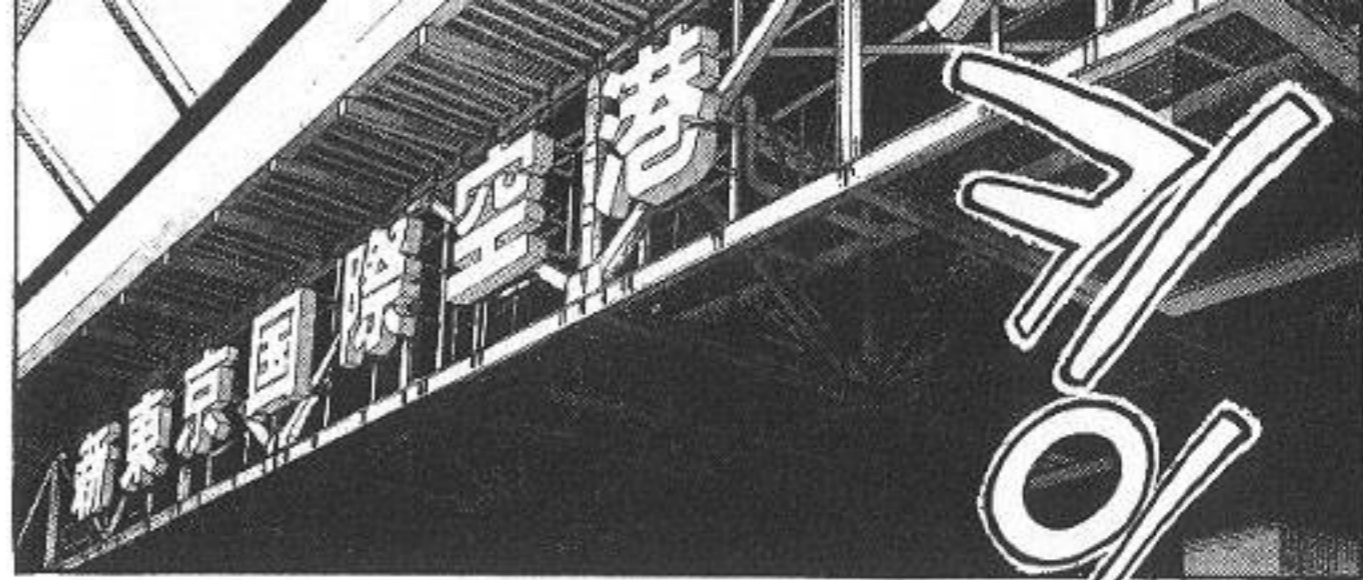


그런 잡동사니를
우리가 소중히
문었다고 생각하니
한심하다~.



주간지에,
포르노 영화
포스터...

장난감
개구리에
뱀에 딱지에
구슬...



그쪽에서 구하기 힘든
일본 특산품이라도
선물하려 했더니,
웬만한 건 그쪽에도
다 있단다.

몽은
뒤셀도르프로
돌아갔다.



밤새 보물찾기를
하다가
결국 공항까지
몽을 바라다 주게
됐으니...

자아,
가자, 가.

세계는
좁아졌다...



오초야 물론...

오초도 물론 있었고...

아, 큰치.

큰치가 있었지.

에-

에- 또 누가 있더라...



유키지도 있지 않았나?



유키지라고 그 왜, 스모 잘 하던 ...!

유키지?



호박이러니, 꽤 미인이었어!

아아, 그 호박!



유키지...?

뭐... 별...

얼굴은 안 붉히나, 요시츠네!



동키의 옛날 제자는 그 교수의 강좌 학생이고, 이 마크가 찍힌 T셔츠를 팔았어!

우리집 근처에 사는 대학교수가 실종됐어! 그 집 뒷문에 이 마크가 그려져 있었어!

문제는 이 마크야!



그리고 동키는 "이 마크가 뭔지 기억나?" 하는 편지를 보낸 후 죽었다구!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라두!

용하게 그런 우연이 겹쳤구만.



그밖에 누가 있었지? 생각해 봐!

이 마크를 아는 우리 중의 누군가가 이걸 쓰고 있어!

학산코믹스
1055

20세기 소년 Ⅰ

2000년 11월 15일 초판인쇄
2000년 11월 25일 초판발행

저 자 : URASAWA Naoki
역 자 : 서현아
발행인 : 황경태
발행처 : (주)학산문화사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3가 40-9 용일빌딩 2층
전화 : 790-8071~4 FAX : 790-8075
1995년 7월 1일 등록 제3-632호
<http://www.haksanpub.co.kr>

[20世紀少年]

© 2000 by URASAWA Naoki

All rights reserved.

First published in Japan in 2000 by SHOGAKUKAN INC., TOKYO.

Korean translation rights arranged with SHOGAKUKAN INC.

through INTERNATIONAL BUYERS AGENT LTD.

값 3,500원



제2권에 계속

210